

그룹홈 5형제 소원 “올해 성탄선물 받았으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와주실까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수민(가명·11)이는 한 번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 없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산타’가 오길 기도하며 잠에 들지만, 다음 날 텅 빈 머리맡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한 아름 받는 데, 수민이는 그룹홈 선생님, 형·동생들과 함께 먹는 케이크가 유일한 기쁨이다. 수민이는 “크리스마스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트리도 볼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친구들처럼 선물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수민이 같은 지역 소외 아동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실현시켜 줄 ‘산타원정대’를 모집하고 있다.

산타원정대는 연말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17년째 이어가고 있는 캠페인이다. 2023년 산타원정대는 지난달 20일 출범했으며 오는 22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그룹홈에는 수민이를 포함해 그룹홈 막내 지민(가명·6)이와 종하(가명·12), 곧 성인이 되는 래성·세훈(가명·19)이까지 5명이 산다. 입주한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이제는 친형제 못지않게 친밀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이다.

이들 모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건 마찬가지다. 종하는 “기억은 잘

안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좋았다”며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웃었다.

화가 꿈인 수민이는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소원 선물’을 종이에 그렸다. 파란색 색연필로 정성스레 색칠한 ‘RC카(장난감 자동차)’가 요즘 수민이가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이다.

수민이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RC카를 가지고 싶다”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친구들이 RC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RC카를 가지고 놀았던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너무 부럽다. 나도 친구들과 RC카를 가지고 같이 놀고 싶다”고 수줍게 웃었다.

5형제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키만큼 원하는 것도 달랐다.

언어와 신체발달이 느린 지민이는 ‘블록 장난감’이 가지고 싶다. 두뇌발달에 효과적이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교구다.

지민이는 “평소에 블록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 선물을 받으면 미끄럼틀이랑 기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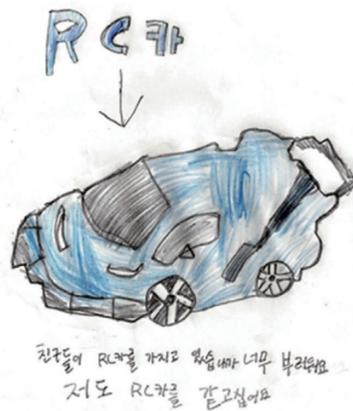
이 밖에도 종하는 “동생과 놀아주려 수민이와 같은 ‘RC카’를, 겨울 외투를 장만하지 못했다는 래성과 세훈이는 ‘패딩’을 소원 선물로 꼽았다.

그룹홈 선생님은 “크리스마스라고 놀러 가거나 선물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며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속속 커 금세 옷이 작아지고 아이들 연령대가

광주 그룹홈 등에 소원 접수 “성탄 선물 받아본적 없어요” 받고싶은 패딩·RC카 등 그려 “산타 원정대 22일까지 모집”



지민이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로 그린 장난감 블록.



수민이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로 그린 ‘RC카’.



광주 모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수민·지민·종하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리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다르다 보니 물려 입히기도 힘들다. 아이들도 ‘내 옷장’에서 ‘내 옷’을 선택해서 입고 싶어 한다. 옷이나 장난감 등이 교우관계와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주고 싶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로 분리된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해 본 일과 감정들이 적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물건뿐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한 크리스마스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산타원정대 캠페인으로 모금된 후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광주 지역 소외 아동들은 수민이네 그룹홈을 포함해 총 370명이

다. 장난감·운동화 등 개별소원 100명(2000만원), 겨울 방한복·성탄파티 지원 180명(그룹홈 35개소, 3600만원), 난방비·난방용품 등 겨울철 난방 관련 지원 90명(4500만원) 등이다.

참여 방법은 ‘문자(010-6601-3513)’로 ‘산타원정대 후원희망’이라고 보내거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062-351-35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호남총괄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하는 선물을 꿈꿔본 적 없는 아이들이 있다”며 “크리스마스만큼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타원정대 참여를 통해 마음을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kang@jnilbo.com

총선 행보 ‘시동’ 조국 전 장관, 5·18 민주묘지 참배

“5·18 정신 생각하며 견뎌야”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히(고이)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추모탑 앞에서 묵념한 뒤

묘역으로 이동,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50여일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와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삼가달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하고자 개인 자적

으로 왔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참석해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신검부 독재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그걸 통해 추락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돌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 제공

상가·사무실 임대

1F 149m²(45평) 업무·근린생활시설 사무실 / 카페 / 판매점 / 의원 등

광주 대표 상권, 업무 중심지 금남로, 충장로, 학원가 옆

문화전당역 도보 6분 지하철 1호선 역세권

위치 광주 동구 제봉로 137(대의동 39-1)

▶ 아시아문화전당 옆

全南日報

문의 062) 510-0421

